| 불자 세상보기 |

# 문학의 힘



맹난자
수필가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허크는 노예를 密告 않으며**
**"난 지옥에 가겠다" 말한다**

**"지옥으로 가도 상관없으니**
**노예 짐을 배신하지 않겠다"**
**오에 겐자부로를 흔든 구절**

**겐자부로의 성찰, 나도 울려**
**독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
**나에게 허크가 깃들길 바란다**

자연은 여름으로 충만한데 나는 그 푸르름 속에 엎드려 지낸다. 독서도 눈이 허락하는 대로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살아서 기쁜 것은 책에서 문학의 힘을 느낄 때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다.

일본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읽는 인간〉을 펼쳐들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노 작가의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그가 아홉 살 때 만난 첫 책은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었는데 "정녕 제 인생은 그 책으로 인해 향방이 정해졌음을,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른 지금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점에서 나는 처음엔 놀라웠고 그다음은 반가웠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백인 소년 허크와 도망친 흑인 노예 짐이 수색대를 피해 뗏목을 타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항해의 난관을 겪는 이야기다. 고난을 함께 하는 동안 허클베리는 종종 도움을 받은 짐에게 깊은 우정을 느낀다. 노예해방을 이룬 마을에 도달하면 짐은 그곳에서 자유로운 신분이었지만 아직 노예해방이 이뤄지지 않은 주에 들어가면 여전히 그는 노예였다. 허크는 짐의 주인인 노부인에게 보낼 편지를 쓴다.

"이 마을에 당신의 재산인 짐이 있다. 현상금을 주면 당신의 재산은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허크는 교회에서 남의 재산을 훔치는 일에 가담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배웠기 때문인데 그는 곧바로 편지를 찢어버리며 이렇게 다짐한다.

"난 이 생각을 버렸고 결코 반복하지 않을 거야. 이런 편지는 두 번 다시 쓰지 않겠어. 그래 좋다.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노 작가는 "지옥으로 가도 좋으니 짐을 배신하지 않겠다. 제가 영향을 받은 것은 이 한 줄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선생님은 "얘들아 여태까지의 국가방침은 사라졌다. 이제 일본은 패했고 엉망진창이 되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방침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자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허크의 말을 나의 방침으로 삼자. 지금껏 이걸 원칙으로 살아온 듯합니다."

**"All right, then, I'll go to hell.(그래 좋다.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나는 갑자기 목안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오래 전 엘미러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마크 트웨인의 동상이 떠올랐다. 거친 세월의 흔적이 담긴 듯한 주름진 얼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작은 키에 그러나 호방한 기개가 느껴지는 모습으로 주머니에 양손을 찌른 채, 먼 곳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가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손질했다는 팔각정 서재 안에서 나는 고달프기만 했던 그의 일생을 떠올리며 기념 책자와 엽서를 사들고 가슴에 안았다. 열두 살에 부친을 잃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던 어린 소년. 그는 뱃길 안내인으로 일하는 동안 키잡이들이 쓰는 전문 용어인 수심 두 길(12피트 깊이) '마크 트웨인'을 필명으로 삼았다. 12살 이후, 학력이 전무 했던 그의 이름이 대학 캠퍼스에 새겨지고 예일대와 미주리대 그리고 옥스퍼드대에서는 그에게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런 마크 트웨인이 오에 겐자부로에게, 오에 겐자부로는 오늘 아침 또 나에게 웅변보다 더 큰 울림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다.

독서는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변모시킨다. 문학의 힘이다. 장애인 아들을 보듬고 평생을 애쓰는 아버지 오에 겐자부로. 그는 반전(反戰) 평화와 휴머니즘적 가치를 위해 큰 목소리를 내며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생에서 유달리 슬픔이 많았던 두 작가의 대비심(大悲心)의 연원을 짚어 본다. '눈물이 없는 자의 영혼에는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는 인디언들의 경구가 마침 생각난다. '그래 좋아! 난 지옥엘 가겠어.' 이런 소년이 내 안에서도 오래 머물기를 바란다.



사유의 숲을 거닐며
송마나 작가

# 수국, 내 마음의 佛頭花

지인들과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려는데 한 분이 수국 한 송이를 식탁에 올려놓으셨다. 우리는 생기를 잃어 축 늘어진 수국을 왜 가져오셨는지 의아했다. 지인은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음료수가 들었던 빈 병을 꺼내 식탁 위에 놓인 물을 채운 후 시든 꽃을 꽂았다. 이윽고 푸르스름했던 수국이 쌀 튀밥이 튀어지듯 탐스럽고 선명하게 활짝 피어올랐다. 싱싱한 수국 한 송이가 놓인 식탁은 이내 화려한 성찬이 되었다.

식사 후 근처의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벽에 걸린 그림 속의 여인이 수국을 한아름 안고 우리를 지긋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가. 소매 없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보랏빛 수국 다발을 안고 앉아있는 여인은 우아했지만 왠지 처연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국(水菊)은 물국화로 불두화(佛頭花)를 꼭 닮았다. 수국은 국화처럼 절개나 충절 그리고 인고의 향기를 지니면서도 물이 없으면 바로 시든다. 이래서 수국은 장마철에 피어나는 것일까. 주룩주룩 내리는 빗속에서 꽃을 만개하다가 장마가 그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그만 시들어 버린다. 그러나 말라버린 수국을 물속에 담가두면 금방 살아난다. 사람이 생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수국도 물을 떠

**숲 태워도 다시 살아나는 '수국'**
**어떤 역경에도 청정함을 지켜내**
**수국이 함빡 꽃봉우리 피어내길**

나서는 살 수 없나 보다.

수국은 스스로 꽃의 빛깔을 다양하게 바꾼다. 처음 꽃을 피울 때는 연두색이 슬쩍 깃든 흰색 그리고 분홍색, 하늘색, 자홍색 순서로 변한다. 어쩜 이리도 인생의 여정을 닮았는지. 갓 피어난 새싹과 같은 순진무구한 어린 아기, 아동기를 벗어나 청년기로 들어서면서 성적 호기심으로 볼이 빨개진 사춘기, 강건한 신체와 웅지의 뜻을 늠름하게 펼치는 새파란 장년기, 해가 기우는 저녁노을처럼 검붉게 물든 노년기,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수국의 꽃잎은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을 꽃잎이라고 여기지만 이것은 꽃잎이 아니라 꽃받침이 커져서 꽃잎처럼 행세한 것이다. 꽃받침 안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작은 꽃이 달려있고 거기에 꽃잎과 꽃술이 숨어있다. 남달리 탐스럽고 화려한 꽃이 이렇게도 겸손하고 은인자중할 줄이야.

줄기를 베고 또 베어도 더 많은 새순이 피어나는 꽃. 산불이 나서 숲을 온통 태워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꽃. 수국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도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인 생명수만 마시면 청정하게 살아나는 내 마음의 불두화(佛頭花)이다.

장마철이다.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져 수국이 함빡 꽃잎 터트리기를 합장한다.

社說

# 포교단체 모연 인식 확산해야

모든 일은 인력, 조직, 재정의 3박자가 맞아야 잘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불교 포교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 포교원이 시도하고 있는 포교단체의 재정 건전화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

최근 불자 감소로 인해 일선 사찰에서는 신도가 감소해 분담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런 상황에서 포교의 종단 의존도를 낮추고, 자생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문제는 앞서 말한 3박자 중 재정이란 한 틀이 대부분의 포교단체에서 무너져 있단 점이다. 회원 회비나 종단 보조금 지원에 비해 기부나 후원금이 너무나도 미약한 현실이다. 재정 자료를 제출한 단체 중 대부분이 기부, 후원이 10% 미만이었다.

물론 포교단체는 포교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기부나 후원을 전문적으로 받기는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바뀌었고, 지속적인 포교를 위해서는 기부나 후원 모집도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불교계에서는 지금까지 기부나 후원을 복지 차원에서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웃종교계와 같이 포교 차원에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기부나 후원이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선업을 짓게 하는 또 다른 자비행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모금이 아닌 모연(募緣)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기부와 후원을 활성화 한다면 불교 포교의 또 다른 장이 열릴 것이다.

이를 위해 포교단체들의 신뢰성 제고와 불자 인식 개선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조계종 포교원은 최근 신행혁신을 기치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종단의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현장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길 기원한다.

# 南北 불교교류 다시 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 '신 베를린 선언'이라는 대북 구성을 내놓으며, 평화적 해결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실험을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평화적 해결 방안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사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는 대북 교류가 전무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이로 인해 활발하게 활동했던 불교계 통일 단체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교류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무산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근 10년 간 불교계 통일 단체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대북 정책 기조를 들고 나온 만큼 이에 맞는 아젠다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7월 20일 개최한 '정책 환경 변화 대비 통일 종책 연구 보고회'에서 나온 지적들은 고민해볼만 하다. 특히 이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계종의 공식적 통일종책은 부재하다. 총무원과 종회서 결의한 일관된 통일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종책의 3가지 방향성으로 △남북정세에 따르지 않는 일관성 수립 △평화적 여론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불교통일교육 실시 △통일종책의 공론화 및 제도화를 제시했다. 이 같은 연구 보고서들은 단순히 연구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종책과 실천사업으로 꽃을 피워야 한다.

통일 시대의 불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총무원 및 종회에서 결의된 공식 통일 종책이 있어야 한다. 이 같이 흔들림없는 통일 종책만이 남북 불교교류 활성화와 통일 시대 불교를 열 수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